

Park 16 인터뷰/Interview [한국 옮김 & English Translation]
*오디오에서 글로 옮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체 의미를 잘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Important point of note: The Korean transcription is not exact; I have clarified some of the expressions and omitted repetitive parts. The essential message remains the same.

Person Code: Park 16

Interviewer: I

I: 첫번째 질문은요, 6.25 전쟁 때 몇살이었고 어디서 사셨어요?

I: How old were you during 6.25 and where did you live?

Park 16: 나는 영등포 18 살이었어요.

Park 16: I was 18 and lived in Youngdeungpo.

I: 두번째 질문은 제일 걱정 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I: What was your biggest concern?

Park 16: 6.25 때 인민군들 넘어 올 때 일안양교를 끊었어요. 북쪽 양반들이 피난 오다가 다리가 끈겨서 한강으로 오다가 사망한 사람들도 있고. 한강다리 끊었으니까 인민군들이 못 오니까 밤에 사람들 불러서 건너온 사람들이 미군 비행기가 세대인가 와요. 그래서 폭탄을 쏘니까 한강 물이 올라간게 영등포에서부터 보여요. 사람 다치는건 한도 없어. 아군들도 가다가 폭격하면 다 죽지. 말도 못하죠.

Park 16: When inmin armies invaded, they cut off Ilan Bridge. Some died because of this. Inmin armies couldn't come anymore because the bridge at Han River was cut off; it was a time for US planes then. They bombed the Han River and people at Youngdeungpo could see the water rise and people dying endlessly. The air raids killed even our armies.

I: 어르신도 피난을 가셨나요?

I: Did you also flee?

Park 16: 안 갔어요. 그냥 영등포에서 우리 오라버니가 다리를 다치셔서 피난도 못 가고 그냥 뚝 쪽으로 돌아댕기다가 안양에 있고 그랬어요.

Park 16: No. I just stayed because my brother hurt his legs.

I: 6.25 에서 인민군들 아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배반했다 하며 죽이는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I: Weren't you anxious that either inmin or our national armies would accuse you of treason and kill?

Park 16: 인민군들은 사실 몰라. 여기 사람들이 반동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심했어요. 무슨 경찰, 통장, 다 잡아서 가족들 다 죽이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주변을 아니까 나서가지고 하더라고요. 인민군들은 빨간거 채고 당기고.

Park 16: Inmin soldiers actually didn't know much. There were rebels here, and they were the extreme ones. They killed anyone who occupied police or leading positions and their families. They knew their area.

I: 인민군들보다 마을 사람들이 더 많이 해를 끼쳤나요?

I: Did village people caused more harm than inmin soldiers?

Park 16: 네. 사실이에요. 왜냐면 경찰가족이니 군인가족인지 아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Park 16: Yes. Because they knew who belonged to police or soldier families.

I: 그 당시 6.25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I: How did you understand 6.25?

Park 16: 이해? 이해라는데 없죠. 그냥 무작정으로 쳐들어 왔으니까. 완전 공산단이야. 그리고 중간에 인민군들도 내려가고 맥아더 장군님이 인천에서 딱 잡아서 내려간 인민군들도 많이 죽이고. 이쪽에서도 한강을 못 건너 가니까 많이 다치고. 배가 마포까지 왔거든? 그 인민군들이 탄을 다 실고 와서 그거를 잘 옮기고 그렇더라고. 나는 친구가 있으니까 셋이서 같이 간다고 인민군들이 차를 실고 날르니까 우리 수고하십니다 하고 그냥 차 타고 왔다 갔다 했어. 그 당시는 말도 못하게 태국기가 아군들 와서 하고 미군도 오고... 만세 부르고.

Park 16: Understanding? There could be no such thing as understanding the war. They attacked without a reason. Totally Communists, their actions were. Inmin armies came down a lot, but MacArthur managed to stop them at Incheon and killed many of them. Because we couldn't cross Han River, a lot of them died. We sang our national anthem and cheered when our armies and the US armies came...

I: 군인들은 다 두려우셨나요, 아님 인민군들과 중국군대들이 제일 두려우셨나요?

I: Did you fear all soldiers, or just inmin and Chinese volunteers?

Park 16: 중공군들은 못 봤어요. 인민군들만 보고. 중국군대는 늦게 왔죠.

Park 16: I didn't see any Chinese volunteers because they came in late. I only saw inmin soldiers.

I: 마을 사람들이 해를 끼칠 때가 많다고 이유가 있었나요?

I: Were there any reasons for the harm done to residents?

Park 16: 해라는데 다른게 없어요. 그냥 이쪽 아군 가족이다 하고 해롭게 한거죠.

Park 16: By harm, I can only think of conflict arising because of belonging to different sides.

I: 그냥 가족들이면 아무 이유 없이?

I: Sometimes, were the entire family members targeted without any reason except that they belonged to a same family as an accused?

Park 16: 그래서 군인 가족 순경가족 미리 부산쪽으로 갔어요.

Park 16: Yes. Therefore, soldiers' and the police family escaped to Busan before.

I: 서로 알면 죽이는 게 힘들지 않았나요?

I: If they knew each other before, wouldn't they feel guilty about the killings?

Park 16: 그 때는 너나 할거 없이 도와줄 기회는 없었어요. 길에 가다가도 갑자기 비행기가 폭격하고. 다리가 잘리고 몸에 파편에 배기고. 말도 못하죠. 나야 집적 봤으니까.

Park 16: You didn't have chance to help others. There were air raids, and always a chance for the cut legs or fragmented bodies.

I: 그 다음 질문은 어떻게 살아갔나요?

I: How did you live through the war?

Park 16: 저는 나이가 그래서록 그냥 집에 있었어요 가족들이랑. 폭격을 하면 집안에서도 이불을 뒤집어 써요. 숨이 파란이 뱅 돌아서 못 뜰어요.

Park 16: I was young enough to just stay at home with my family. Violence continued and I would hide under the blanket. The blanket would stop the bullet.

I: 학교는 다닐수 있었나요?

I: Could you attend school?

Park 16: 못 다녔지만 국민학교 땡기고 해방 되고 부모님 따라서 한국으로 나왔어요.

Park 16: I could not, but after attending elementary abroad, I returned to Korea after liberation.

I: 그 다음 질문은 6.25 당시에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힘들었잖아요. 이념 갈등, 주변의 갈등, 먹고 사는 것에 걱정 중 어느 것이 가장 힘들었나요?

I: During 6.25, your everyday life must have been difficult; can you choose which one of the three, ideological conflict, conflict between residents, and food shortage impacted you the most?

Park 16: 갈등이 말도 못하죠 주변 사람에 갈등은 이웃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Park 16: I can't describe all the conflicts. Residents would kill one another...

I: 죽은 사람들은 알려진 집들만 있었나요? 평범한 사람들은 서로 도우면서 살고?

I: Did only well-known houses die? Did ordinary villagers help one another?

Park 16: 맞아요.

Park 16: Yes.

I: 이념적 갈등이 있었나요?

I: How about an ideological conflict?

Park 16: 그 당시에는 공산당 얘기 못했어요. 그냥 지냈지.

Park 16: You couldn't talk about communism at the time. You just tried to survive.

I: 전쟁 때 기억에 남는게 있으신가요?

I: What was the most memorable part of the war?

Park 16: 여러가지 기억이 있는데. 행복했을때는 맥아더 장군님이 인천을 중간으로 만세 부르게 제일 기억나죠. 한국을 많이 도와주셨죠.

공산군들은 영등포 경찰소에 갇혀 있었죠. 아군들 들어오고 그 사람들 다 끌었죠.

Park 16: I have many memories. I was overjoyed when MacArthur came to Incheon and we cheered. He helped Korea a lot. Communists were locked in Youngdeungpo police office. Our national armies also entered and dragged people away.

I: 마지막 질문인데요 인민 통치 안에 산적이 있으세요?

I: Did you ever live under the inmin rule?

Park 16: 가족들이 남자들은 무조건 끌어다가 이북으로 데리고 가고. 에매하게 간 사람 많아요.

Park 16: Men were dragged North often without ideology.

I: 월북한 사람이 있었어요?

I: Did anyone volunteer?

Park 16: 일부로 간 사람들은 없고 여기 반동들이 데리고 간 적은 있죠.

Park 16: Nobody went purposely. Reds in the region did though.

I: 감사합니다.

I: Thank you.